

### 중국, 파나마에 엄정 교섭 제기

2월 7일, 외교부 부장조리 조지원은 주중 파나마 대사 레카로를 초청해 양국간 '일대일로' 공동건설 양해각서를 종료하려는 의도에 대해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

조지원은 최근 파나마측이 중국-파나마 '일대일로' 공동건설 양해각서를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중국측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틀 내에서 양국간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이 빠르게 발전하여 일련의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고 파나마 국가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150여개 국가 '일대일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파나마를 포함한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 '일대일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바람을 거슬러 항행하는 것은 중국과 파나마 국민의 기대에 위배되고 파나마의 실질적인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지원은 중국측은 파나마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존중하고 국가가 크고 작은 모두 평등하고 상호 존중해야 하며 신뢰를 증시하고 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측은 미국이 압박과 위협의 수단을 리용해 중국과 파나마의 관계를 합리로 훼손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을 파괴하는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 파나마의 관계는 종래로 제 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제 3자의 간섭도 받아서는 안된다며 파나마측이 양국 관계의 큰 국면과 양국 국민의 장기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레카로는 파나마측은 중국측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며 즉시 자국 정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

## 세계로 뻗어가는 내몽골 바안놀르 해바라기씨

내몽골자치구 바안놀르(巴彦淖尔)시의 해바라기씨가 해외 각지로 널리 뻗어나가고 있다.

바안놀르에서 해바라기씨 농사를 짓는 57세 왕비. 왕비는 현지에서 재배한 해바라기씨를 한국, 애급, 독일 등 시장에서 글로벌 상품으로 탈바꿈시킨 열정 덕분에 '해바라기씨의 왕'으로 불린다.

시중에 판매되는 해바라기씨 대부분은 중국 최대 식용 해바라기 생산기지인 바안놀르의 염류 알카리토양에서 생산된다. 이곳은 2024년에만 94만톤 이상의 해바라기씨를 생산해 40여개 국가(지역)에 수출했다.

왕비는 급부상하는 해바라기산업에 뛰어들어 기업가로 성공한 현지 농부 중 한명이다.

왕비는 1987년 해바라기씨를 국내에서 거래하기 시작해 2012년 국제시장에 진출했다. 2024년, 왕비가 운영하는 민태농업무역회사는 7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그중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4년 9월 19일, 내몽골자치구 바안놀르시 오원현의 농부가 해바라기씨를 수확하고 있다. / 신화넷

이 강한 해바라기를 재배하는 데 리상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에 왕비는 그의 가족이 소유한 염류 알카리토양에 해바라기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해바라기는 염분과 알카리, 가뭄에 강해 재배하기 쉽다."고 말했다.

2024년, 바안놀르는 해바라기 재배면적이 약 29만 3,333헥타르까지 확장됐다. 이는 전국 해바라기 재배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이곳의 해바라기산업은 종자 판매, 재배, 가공, 수출, 전자상거래 물류는 물론 관광까지 아우르는 가치사슬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시장 정보에 따르면 2023년 해바라기씨 시장 규모는 323억달러에 달했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는 연 평균 약 9.4%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안놀르의 해바라기산업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지 농업과 학자들은 SH361, SH363 등 우량 품종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더불어 오래동안 세계적으로 해바라기 생산에 차질을 준 기생식물 열당과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 데도 성공했다.

◇ 해바라기씨, 바안놀르 농산물 수출의 대들보

지난 음력설을 앞두고 바안놀르 소재의 공장들은 분주한 풍경을 연출했다. 웅웅거리는 기계소리로 가득찬 공장에서 일꾼들은 빠른 손놀림으로 수출용 해바라기씨를 분류했다.

바안놀르 용대상업무역회사 사장 조씨는 "련휴전에 해외 주문건을 모두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해바라기씨 수출량은 3만 5,000톤으로 해외 수요가 상당했다."고 부연했다.

바안놀르의 경우 현지 강점을 활용해 120개의 해바라기 가공 선도 기업을 구축했다. 시장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음력설 련휴에 해바라기씨를 즐겨 먹는다. 외국인들도 이러한 식습관을 공유하고 있다. 크리스마스과 같은 련휴가 우리에게 수출 성수기이다." 왕비는 련휴 경제가 소비를 강하게 자극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바안놀르의 해바라기씨 등 제품은 중동, 동남아, 유럽 등 40여개 국가(지역)에 수출된다. 수출액은 연간 42억원으로 바안놀르 전체 농산물 수출의 64%에 달한다.

이 같은 성과에는 강력한 정책 지원이 있다. 지난 2년간 바안놀르는 해외 창고 구축을 위한 선도 기업 육성, 다국전자상거래 발전,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수출 촉진을 위해 혁신 전략을 시행해왔다.

2024년, 왕비는 상황에 맞춰 운송 방식을 변경했으며 중국-유럽 화물 열차를 통해 해바라기씨를 유럽으로 수출해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그는 "올해 목표는 에스파냐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

### 만마 사기단지로 유인된 외국인 61명 구출



#### 중국인 39명 포함

2월 6일, 만마 미야와다 온라인 사기단지 피해자 61명이 구출되었다. 만마는 타이와의 국경 지역에서 해당 인원들을 타이 당국에 인계했다. 이번에 구출된 피해자중에는 중국인 39명도 포함되어있다. 그외 까자흐스탄인 1명, 인도네시아인 5명, 에티오피아인 1명, 파키스탄인 1명, 말레이시아인 1명이 포함됐다.

/ 신화넷

6일, 타이 국방부 장관은 타이측은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여 국경을 넘는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밤 만마도 국경지역에 존재하는 온라인 도박, 통신사기 등 범죄행위를 이웃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조사하고 관련 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로미 대통령 통화 소식

## “확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

9일, 파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로씨야 대통령 대변인 페스코프는 로씨야 대통령 푸틴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했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8일,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푸틴과의 통화를 통해 로씨야-우크라이나 충돌 문제 해결을 논의했다. 하지만 보도는 통화 진행 시간 등 많은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파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페스코프

는 트럼프 취임후 푸틴이 트럼프와 통화했는지에 대한 파스통신의 질문에 회담하면서 미국정부의 각종 업무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 로씨야와 미국간에 많은 '다양한 경로'를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페스코프는 자신은 우에서 언급한 소통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 소식을 확인할 수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신화넷

### 한국 어선 침몰, 4명 사망 5명 실종

2월 9일 새벽, 14명 선원이 탑승한 한국 어선이 한국 전라남도 여수시 린근 해역에서 침몰되었다. 한국 해경의 소식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2시까지 어선에 탑승했던 인원중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그외 5명이 구조되었는데 1명은 의식을 잃은 채 구조중이었다.

한국 해경에 따르면 당일 새벽 1

시 41분경 동행하던 어선이 해상경보를 울려 여수 해경이 즉시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긴급 출동시켜 구조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기상 악화로 인해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일시 중단되면서 야간까지 지속되었다. 여수 해경의 경비함정 21척과 항공기 4대, 해군 및 민간 선박 20여척은 야간 구조에만 참여했다.

/ 신화넷

## 딥시크, 인공지능 개발에 새로운 시사점 제공

유럽 언론:

중국 인공지능(AI) 기업인 딥시크(深度求索·DeepSeek)가 오픈소스 버전 추론 모델(开源模型) 딥시크-R1을 공개한 가운데 유럽의 다수 언론이 딥시크의 경험을 높이 평가했다. 제한적인 연산력과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선진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 딥시크가 일종의 시사점이 됐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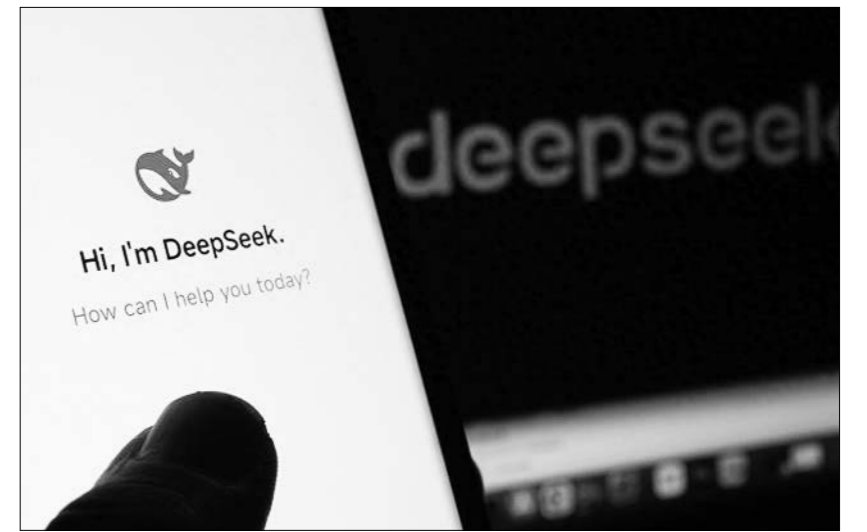
스위스 일간 《뉴취리히신문》은 유럽이 미국처럼 거액의 자금을 끌어모아 강력한 연산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유럽은 AI 경쟁에서 승산이 없을 것으로 여겨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럽과 스위스는 AI 열풍에 필요한 가장 중요

한 자원인 지능과 훈련된 우수 인재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딥시크의 사례가 자금과 연산력이 제한적 이더라도 우수한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유럽 연구진에 열어줬다고 전했다.

독일 《르몽드》(세계신문)는 AI 경쟁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AI 업계의 기존 방식을 성공적으로 깨뜨렸다고 보도했다.

한편 영국 《가디언》(외보)은 딥시크-R1이 AI 기술을 보급해 미국 이외 다른 국가의 개발자가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 신화넷



딥시크(DeepSeek)

/ 시각중국



2025년 음력설 모회가 8일 한국 서울에 위치한 한성화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모회는 '따뜻한 봄맞이·정이 넘치는 중·한'을 주제로 묘족의 무용, 사천의 지방 전통극인 변검(变脸), 무술공연, 민속음악 연주 등 특색있는 행사를 펼쳤다. 중화 미식, 전통수공예, 무형문화유산 등 전시부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중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다.

사진은 주한 중국대사 대변이 이날 모회에서 서예 체험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 신화넷